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통일부 통일교육원

05
Ⅰ. 들어가는 말

09
Ⅱ. 북한의 교육정책 기조와 학제
1. 교육정책의 기조 : 주체형 인간 양성
2. 교육의 대중화 : 11년제 의무교육제 및 성인교육 발전

19
Ⅲ.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특성
1. 체제유지와 이데올로기교육 재생산
2. 과학기술교육과 IT교육 강화
3. 보통교육 정상화 및 수재교육 확대
4. 학교교육과정 변화 : 실용적 교과 도입
5.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와 교육 변화

55
Ⅳ. 나오는 말

깊이보기

12 _ 〈깊이보기❶〉「사회주의교육테제」(1977)와 「교육법」(1999)
25 _ 〈깊이보기❷〉 선군정치란?
32 _ 〈깊이보기❸〉 학교교육에 대한 새터민들의 증언
36 _ 〈깊이보기❹〉 제1중학교
43 _ 〈깊이보기❺〉 컴퓨터교육 현황
46 _ 〈깊이보기❻〉 외국어교육 실태
50 _ 〈깊이보기❼〉 북한 관리들의 시장경제분야 연수사례
52 _ 〈깊이보기❽〉 북한 교육기관들의 시장경제학습을 위한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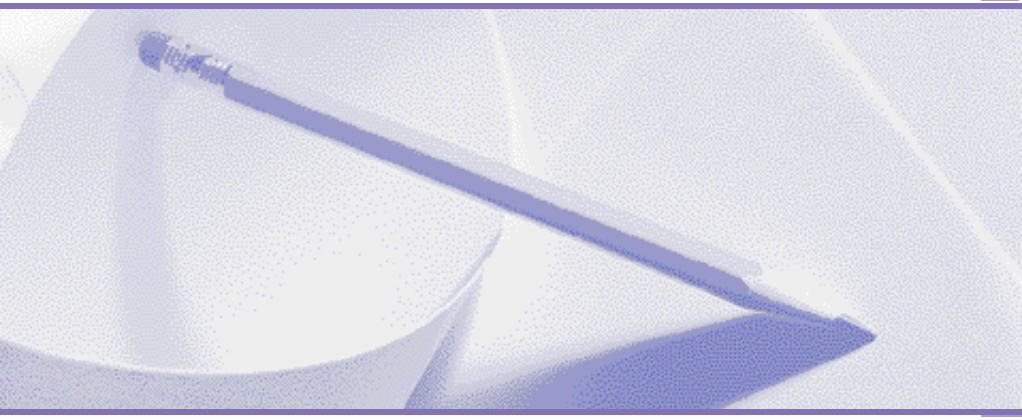
표

15 _ 〈표 1〉 북한의 의무교육제도의 역사
17 _ 〈표 2〉 북한의 학교교육제도
27 _ 〈표 3〉 김정일정권 출범 이후 과학기술 교육제도의 주요 동향
28 _ 〈표 4〉 북한의 IT 경연대회
31 _ 〈표 5〉 「교육법」(1999)의 무료교육 내용
34 _ 〈표 6〉 수재교육기관
39 _ 〈표 7〉 소학교 교육과정
40 _ 〈표 8〉 중학교 교육과정

사진

13 _ 〈사진 1〉 김일성 85돌 생일기념 집단체조
15 _ 〈사진 2〉 국영안악농장탁아소
〈사진 3〉 봉천읍 농장유치원
〈사진 4〉 김정숙탁아소
〈사진 5〉 종합놀이장의 어린이들
16 _ 〈사진 6〉 보통강인민학교수업 장면
23 _ 〈사진 7〉 김일성동상 참배행렬
26 _ 〈사진 8〉 조선컴퓨터센터 체계프로그램 분소 – 20대 청년과학자들
29 _ 〈사진 9〉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
30 _ 〈사진 10〉 북한의 각급 교과서
34 _ 〈사진 11〉 강반석유자녀대학
36 _ 〈사진 12〉 만경대혁명학원 모형사관
39 _ 〈사진 13〉 영웅위훈 따라배우기
41 _ 〈사진 14〉 김정숙반신상에 꽃바구니를 증정하는 모습
43 _ 〈사진 15〉 컴퓨터교육 장면
46 _ 〈사진 16〉 창전고등중학교 외국어학습 장면
48 _ 〈사진 17〉 전국청소년바둑경기대회
52 _ 〈사진 18〉 김일성종합대학교 정문

Ⅰ. 들어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는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보다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독일통일을 지켜보면서 통일되는 것 못지 않게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준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 · 경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사회 · 문화 통합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주민들간 심리적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준비에 대한 이런 인식 지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

합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으며 교육통합의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개인의 이익과 가치보다는 통치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교육풍토 속에서 자라고 있다. 그렇다면 사상으로 무장된 북한 청소년과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남한 청소년과의 통합은 가능할 것인지, 남북 청소년들이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는 남과 북의 통일교육 준비가 얼마나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인지를 시사해주는 근거이다.

해방 이후 한국교육은 적지 않은 변화를 거듭해 오는 가운데 식민교육, 군사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제 평생교육시대, 학습자 중심 사회, 교육 지방자치화를 구현해 가면서 민주적 교육풍토를 정착시켜 가고 있다. 냉전시대에 멸공과 반공이 국시였다면 이제는 안보통일, 나아가 평화통일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남한사회의 변화와 비교하여 북한은 어떠한가? 남한사회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 것에 반해, 북한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그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는데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사회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점은

남북한이 지난 60여 년간 전혀 다른 정치 · 경제 ·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북한은 대내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가지 변화를 모색해 왔고 이는 적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분야도 과거에 비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해수준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제 북한교육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북한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교육현상에 비추어 북한교육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또한 지구촌 구석까지 파고드는 시장경제의 논리 및 세계화 · 정보화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북한교육은 어떠한 변화를 모색하는지 진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형이 양성되는가? 김정일시대 교육정책 및 학교제도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함의는 무엇인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 · 식량난으로 인한 국가배급제도의 와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시장경제의 부분적 경험 등은 교육부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 소책자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도출코자 한다. 즉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발전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Ⅱ. 북한의 교육정책 기조와 학제

Ⅱ 북한의 교육정책 기조와 학제

1. 교육정책의 기조 : 주체형 인간 양성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 ·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특정사회와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정치적 가치관 및 도덕성의 형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양' 교육을 중시해 왔다.

북한 어린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 교육부터 의식주를 제공해 준 국가지도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양육된다. 우리말과 셈세기를 통해 기초적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김일성 · 김정일의 어린시절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가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일상생

활의 가치기준으로 내면화한다.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본격적인 학교생활과 조직활동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심화시킨다.

교육을 통해 강조되는 가치는 간단하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집단과 국가를 위해서, 당과 수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어떤 정책의 기조 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형을 양성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교육정책의 기조를 살펴보면, 북한교육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을 실현하는데 있다. 195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주체사상은 '70년대에 와서는 정치원리로 채택되어 「노동당규약」(1970)과 「사회주의헌법」(1972)에 명문화 된다.

주체사상은 교육원리에도 반영되어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이하 '테제')」(1977)로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테제에 의하면,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은 당성과 노동계급성을 구현하여 학생들을 넓게는 당과 사회주의혁명에 충실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며, 좁게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다.

깊이보기 ❶ : 「사회주의교육테제」(1977) 와 「교육법」(1999)

북한교육에 관한 기본법은 1977년 9월 5일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북한은 같은 해 9월 5일을 교육자와 학생을 위한 '교육절'로 지정할 정도로 테제를 중요시 하였다. 테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 교육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1999년 8월 11일 건국 후 최초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법」을 채택하였다. 교육법은 테제를 계승하는 한편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교육의 실용적·개방적 측면을 명시하고 있다. 테제와 교육법에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며,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움…"(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교육법 제3조)

북한사회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교육목적은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유일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교육은 주체교육, 주체형 인간의 양성이 보다 강조되어 왔다. 그렇다면 주체형 인간이란 어떠한 인간상을 의미할까?

공산주의적 인간형이 인민과 집단을 위해 공산주의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주체형 인간은 '인민·당·수령이 하나'라는 논리에 의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닌 사람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닌 인간이란 개인의 이익과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혁명위업을 위해, 수령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인간이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일성·김정일의 "충성동이와 효자동이",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한 인간형이 강조되었다. 주체형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학교교육과 조직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사진 1〉 김일성 85돌 생일기념 집단체조

2. 교육의 대중화 : 11년제 의무교육제 및 성인교육 발전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해 왔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문 급속한 학교팽창과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를 달성했다. 북한도 '교육의 나라'로 자부하면서 해방 이후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즉 11년제 무료의무교육제를 통해 교육의 대중화를 달성하고 '전사회의 인텔리화'를 목표로 고등교육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학교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첫째, 북한은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평등원리에 따라 교육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노동자·농민이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목표로 국민들 모두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해 왔다.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단계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현재 북한의 모든 학교는 공립학교로서 국가에서 교육경비 일체를 부담하며, 학생들은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교육을 받는다.

현행 학제는 1975년에 완성된 4-6-4(6) 학제를 기본 틀로 발전하였다. 의무교육기간은 유치원 1년을 포함하여 소학교 4년, 우리의 중·고교를 통합한 형태인 중학교 6년까지 해당된다. 대학은 4-6년제이며 우리나라의 대학원에 해당되는 2-4년 과정의 박사원이 있다.

〈사진 2〉 국영안악농장탁아소

〈사진 3〉 봉천읍 농장유치원

〈사진 4〉 김정숙탁아소

〈사진 5〉 종합놀이장의 어린이들

〈표 1〉 북한의 의무교육제도의 역사

시행 연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0년	5년제 초등의무교육 (한국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의무교육 (인민학교 4년 + 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의무교육 (인민학교 4년 + 중학교 5년)
1975년 ~현재	11년제 전반적의무교육 (유치원 1년 + 인민학교 4년 + 고등중학교 6년)

둘째, 북한의 중등교육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보통교육과 엘리트 교육으로 병행 발전하고 있다. 중등교육단계에서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을 없애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완전한 중등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중학교는 일반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와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수재학교로 구분된다. 수재교육의 경우, 입학단계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재학교에서 엘리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재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능력에 따라 예체능분야, 외국어분야, 자연과학분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진 6〉 보통강인민학교수업 장면

셋째, 북한의 고등교육은 일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으로 병행·발전되어 왔다. 일반 고등교육에는 종합대학·단과대학·고등전문학교가 포함되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라 일컫는다. 종합대학은 3개뿐이고 단과대학과 고등전문학교가 다수를 차지한다. 단과대학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습득할 기사를 양성하고,

고등전문학교는 현장기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성인 고등교육체계는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이라 일컫는다. 학교교육과 성인교육 또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원리에 따라 일찍부터 성인교육이 발전되었다. 공장이나 농장에 부설되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학 등이 이에 속하며, 대학부설 통신대학도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표 2〉 북한의 학교교육제도

<table>
<tr><td rowspan="2">고등교육</td><td colspan="2">박사원(2-4년)</td><td rowspan="2">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통신대학(4-6년)</td></tr>
<tr><td colspan="2">대학(4-7년)
단과대학(3-4년)
고등전문학교(2-3년)</td></tr>
<tr><td>중등교육</td><td rowspan="3">11년
의무
교육</td><td>중학교(6년)</td><td rowspan="3">수재
교육
기관</td></tr>
<tr><td>초등교육</td><td>소학교(4년)</td></tr>
<tr><td rowspan="3">학교전교육</td><td colspan="2">유치원(높은반 1년)</td></tr>
<tr><td colspan="3">유치원(낮은반 1년)</td></tr>
<tr><td colspan="3">탁아소</td></tr>
</table>

Ⅲ.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특성

Ⅲ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특성

1. 체제유지와 이데올로기교육 재생산

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담론으로서 확고한 유일 이데올로기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유일적 위상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여건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하위담론을 수시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시대의 도래를 전후한 1990년대에 두드러진다.

이 시기 체제유지를 위한 통치담론은 세 가지로 대별된다. ⑴ 구소련 및 사회주의국가들의 급격한 체제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우리식' 사회주의, ⑵ 김일성 사망 이후의 '붉은기 철학'과 유훈통치, ⑶ 김정일정권의 출범 이후 '강성대국'과 '선군정치'가 그것이다. 북한은 시대적·정치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통치담론을 만

들어내고 이를 이데올로기교육을 통해 재생산하고 있다.

▶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199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붕괴는 북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은 동일한 이념과 체제에서 출발한 북한의 몰락을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변용을 통해 당면 위기를 돌파할 체제정당화의 논리를 개발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담론이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일찍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는 수령 · 당 · 대중이 일심단결된 사회주의이므로 수령의 영도하에 당과 인민이 함께 건설해가는 사회주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교양사업을 전개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 '붉은기' 철학과 유훈통치

김일성 사후에 새 통치담론으로 '붉은기 철학'이 제시되었다. 붉은기 철학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가에 대한 도덕의리와 일심단결'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의 과도기 정국에 혁명가에 대한 도덕적 의리와 신념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이 수령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동요와 사회주의 신념에 대한 정신적 회의감을 무마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과도기 정국의 또 다른 타개책으로 '김일성 유훈통치'가 제시되었다. "위대한 수령에게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본분이며 최고의 혁명적 의리이다."(노동신문, 1995.12.25.) 유훈통치란 김일성의 유훈을 이어받은 김정일정권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죽었지만 그 혁명적 업적은 김정일에게 계승·발전되었으므로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자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붉은기와 유훈통치사상을 기반으로 혁명전통교육을 강조하였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혁명의 1·2세들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성, 불굴의 투쟁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는 혁명전통교육이 강조되었다. 또한 혁명전통을 강조하여 대학교와 학교의 명칭을 혁명사적지나 영웅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결핍되어 있는 물질적 보상 대신에 김일성 유훈통치나 혁명전통교육과 같은 사상적·도덕적 자극을 통해 '90년대의 위기 정국을 효과적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시도였다.

〈사진 7〉 김일성동상 참배행렬

▶ '강성대국'과 '선군정치'

1998년 9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김정일정권은 새 통치담론으로 '강성대국'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국가발전의 목표로 제시된 '강성대국 건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정일정권이 '90년대의 위기를 해소하면서 체제안정 및 경제난

국을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이다.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사상, 총대, 과학기술을 제시하였는데, 정치사상 · 군사 · 경제부문에서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사상의 토대 위에 경제를 건설한다는 강성대국의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정권은 '선군정치'라는 군부중심의 위기관리통치로 체제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는 국가기관은 물론 인민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로 확대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군의 역할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전통적 역할 이외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군이 대외교섭의 기능을 담당하고 경제건설의 정상화와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생활에 대한 치안과 사회규범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군정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깊이보기 ❷ : 선군정치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선군정치를 공식 표방하였다. 새 헌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기관으로 삼음으로써, 북한은 제도적으로 군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국방위원회가 군과 국가기관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면서 김정일 개인의 권력 강화와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과학기술교육과 IT교육 강화

김정일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과학의 해'를 지정하는가 하면 '과학기술 중시풍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김정일은 20세기가 기계제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화산업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정보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교육·출판·통신의 각 분야에서 정보기술을 받아들여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강조는 학교에서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의 실시로 구체화되고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은 IT의 위력으로 건설된다." "앞으로 21세기의 문맹자는 정보기술을 모르고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 정보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노

동신문, 2001.5.23)이라며 컴퓨터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1998년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중학교 4학년 이상부터 컴퓨터수업을 주당 2시간씩 편성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자연과학분야의 수재를 양성하는 제1중학교를 각 시 · 군 · 구역별로 확대 신설하였고, 대학에서는 정보통신 및 컴퓨터 관련학과와 수재반을 신설하고 있다.

〈사진 8〉 조선컴퓨터센터 체계프로그램 분소-20대 청년과학자들

〈표 3〉 김정일정권 출범 이후 과학기술 교육제도의 주요 동향

연 도	내 용
1998	중학교 4학년 이상 컴퓨터 의무교육의 실시
1999	전국 각 시·군·구역별 제1중학교(수재학교) 개설(200여개) 김일성 종합대 컴퓨터과학대학 신설
2000	김일성 종합대, 김책 공대 등에 수재반 운영 교육성내 프로그램 교육지도국 · 컴퓨터 교육센터 설치
2001	함흥 컴퓨터기술대학,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신설 금성학원 내에 컴퓨터수재반 신설 평양 및 각도 제1중학교에 수학수재반 · BT수재반 신설
2002	김책 공대 정보과학기술대학 · 기계과학기술대학 신설 과학원 직속 정보기술학교 신설
2003	희천 체신대 등 주요대학 IT 중심의 학부체계로 개편

북한은 경제난 · 식량난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컴퓨터교육에 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북한은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컴퓨터의 낮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전문연구소나 수재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컴퓨터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가급적 최단 시일내에 IT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인 듯하다.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IT를 비롯한 자연과학분야의 경우, 학교입학의 관건인 출신성분이 조금 나빠도 수재학교나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대학 졸업이후에도 IT분야의 좋은 직장에 배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술분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대학전공을 선

택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표 4〉 북한의 IT 경연대회

대회 명칭	시작연도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1990
전국고등중학교학생 전자계산기프로그램작성 경연대회	1990
전국정보학부문과학기술발표회	1996
전국교육부문프로그램전시회	2000
전국대학생프로그램경연(평양)	2000
전국청년정보기술성과전시회	–
전국청년컴퓨터기술경험토론회(3대혁명 사적관)	–
전국고등중학교학생컴퓨터프로그램 및 타자경연 진행(평양)	2000
전국학생소년궁전 · 회관 소조원들의 수학 및 컴퓨터경연 (평양학생소년궁전)	2002

※ 송경준, 『북한의 IT교육 현황과 특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49쪽.

최근 들어 북한은 IT 과학기술 관련 전시회 ·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정보산업분야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격려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산업의 전산화를 촉진하며, 유능한 IT인력을 조기에 발굴하는데 있다. '전국과학기술축전', '전국프로그램경연대회',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대학생과학탐구상쟁취운동',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 '전국음성인식프로그램경연 및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IT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외적인 협력과 더불어 내부경쟁을 통해 IT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사진 9〉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

3. 보통교육 정상화 및 수재교육 확대

▶ 보통교육 정상화

북한은 1970년대에 이미 11년제 무료의무교육제를 시행하였다. 학비뿐만 아니라 교과서, 학습장, 필기도구에서부터 교복까지 무료 또는 싼 국정가격으로 공급하였다.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는 물론, 대외 선전용으로도 무료교육제도를 자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에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역전되었다. 1980년대에 이미 경제사정의 악화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학교교육의 붕괴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교육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즉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결석률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10-50%까지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학급당 2~3명 정도로 정상을 회복해가고 있다. 부모를 따라 식량을 구하러 외지로 떠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식량과 교육용품을 마련하지 못해 등교하지 않고 마을을 배회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은 국가의 식량배급 중단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졌으며, 교권은 바닥에 떨어졌다. 학교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소로부터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난방뿐만 아니라 교육기자재와 비품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난으로 공급이 중단되었다.

〈사진 10〉 북한의 각급 교과서

〈표 5〉「교육법」(1999) 의 무료교육 내용

조 항	주 요 내 용
제16조	• 모든 교육은 무료이다. 학부모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요금을 받을 수 없음.
제18조	• 학생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눅은 값으로 보장함.
제39조	•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교의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의 건설과 보수를 보장함.
제40조	•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실험설비, 교구비품을 생산 공급함.
제41조	• 교육지도기관은 교과서,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 녹화테이프를 보장함.
제42조	• 교통운수기관과 해당기관은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 조직을 우선적으로 보장함.
제43조	• 지방정권기관과 해당기관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숙사,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을 보장함.

김정일정권은 최근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9년에는 북한 최초로 〈교육법〉을 발표하여 무료의무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지만 이 법이 현실을 뒷받침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교육성은 교과서의 개편과 원활한 공급, 교육내용의 질 개선, 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해당 교육기관과 기업소를 독려하고 있다. 학교시설의 보수, 학교비품과 실험실습기구의 지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학교후원단체를 결성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제1중학교의 모범사례를 일반화하여 보통학교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충분한 인적·물적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무엇보다도 국가 교육예산의 증대가 선결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경제정상화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 단시일에 달성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깊이보기 ❸ : 학교교육에 대한 새터민들의 증언

- 경제난 전까지는 무상의무교육이 그런대로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들어 수업료만 무상이고 교과서·학용품·교복·가방 등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었다.
- 교과서 배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17개 교과목을 배우지만 학생당 3-4과목의 교과서만 배급 받았고 나머지 과목은 다른 학생의 교과서를 베끼거나 빌려서 공부해야 했다.
- 교과서는 옥수수껍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런 종이에 인쇄가 번져서 글씨 자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 학용품·교복 등이 잘 지급되지 않아 개인이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구입했다.
- 학교예산이 부족해지면서 학교 시설의 복구, 책상과 의자, 겨울철 땔감용 나무까지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 지웠다.
- 학생들의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대도시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재학생의 과반수가 결석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는 학교

도 적지 않았다.

- 식량배급이 어려워지면서 교사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단축수업, 합반수업을 하거나 교사를 그만두고 장사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통일연구원, 2005, 80-88쪽 참조)

▶ 수재교육 확대

김정일시대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된 교육기관으로는 단연 '수재학교'를 들 수 있다. 영재학교에 해당하는 수재학교는 이미 1958년부터 신설되기 시작했다.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6-7년제 외국어학원이 설치된데 이어, 1960년 초부터 6-11년제로 운영되는 음악학교, 무용학교, 조형예술학교, 체육학교 등 예체능 분야의 수재학교가 신설되었다. 또한 혁명유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는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 등이 있다. 과학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1984년에 뒤늦게 설립된 6년제 제1고등중학교가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사진 11〉 강반석유자녀대학

〈표 6〉 수재교육기관

분 야	학 교	교 육 현 황
예체능분야	음악학교 무용학교 조형예술학교 예술전문학교 등	6-11년제(소학교-중학교) 1960년부터 신설
자연과학분야	제1중학교 금성학원 '컴퓨터수재반'	중학교 과정(6년) 1984년부터 신설
외국어분야	외국어학원	중학교 과정(6-7년) 1958년부터 신설
혁명유자녀를 위한 학교	만경대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11년제(소학교-중학교) 군사, 정치, 여성간부양성 1947년부터 신설

1970년대 말까지 영재교육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사회주의 교육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능력과 재능은 선천적으로 주어지기

보다 후천적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등교육이 강조되었을 뿐,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의 차이를 인정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영재교육은 최소한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어 수재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김정일은 영재를 조기에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종래 개인차를 부정하던 사회주의 교육원리를 새롭게 조명하여 개인차가 전제된 수재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수재교육은 '집단의 발전'과 함께 '개성의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라며 재능이 있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조기에 선발,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특히 김정일정권의 출범 이후에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요구 속에서 외국어학원과 제1중학교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외국어학원이 과거에는 평양, 청진, 함흥, 신의주에 국한되었으나, 대외활동을 위한 외국어 전문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80년대 후반에는 각 도의 소재지로 확대 · 신설되었다.

깊이보기 ④ : 제1중학교

제1중학교는 과학분야의 영재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우리의 '과학고'에 해당된다.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1984년에 최초로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신설되었다. 1985년에는 개성·남포직할시와 9개 도에 1개 교씩을 신설하였고, 1995년에는 총 26개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1999년에 전국 시·군·구역마다 1개교씩 추가 신설함으로써 현재 제1중학교는 200여개교로 추정된다. 제1중학교는 수학, 과학 및 어학에 소질이 있는 성적 상위 10% 이내의 우수학생을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비해 시설과 건물이 월등하며 교사진도 우수하다. 특히 최근에 제1중학교를 비롯한 수재학교가 명문대학 진학의 필수코스로 인식되고 있어 입학경쟁률이 대단히 높다.

〈사진 12〉 만경대혁명학원 모형사관

이와 같이 북한은 보통교육의 정상화와 수재학교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평등교육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제1중학교로 대표되는 수재학교를 확대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엘리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엘리트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경제력'과 '인력'이 제한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교육기관에 교육재원을 균등하게 투자하는 대신에, 수재학교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함이다.

4. 학교교육과정 변화 : 실용적 교과 도입

북한의 학생들은 무슨 과목과 교육내용을 주로 배울까? 북한의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일반교과와 북한에서만 가르치는 특정교과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지식으로 구성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으로 조직된 지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서 좀 더 직접적이며 명확한 형태로 표출된다. 북한의 교과서는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성격을 철저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도 정치이념적 내용을 다루는 교과서는 외국의 교과서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도덕〉, 〈현행 당정책〉과 같은 정치사상 과목 이외에 통치자를 우상화하는 과목이 그것이다.

우상화 교과목 편성의 역사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교과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가 중학교 과목으로 공식 채택된데 이어 1986년부터는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과목이 새로 편성되었고 1998년 말부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이라는 과목까지 편성되었다.

〈표 7〉 소학교 교육과정

교 과 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어린시절	1	1	1	1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1	1	1	1
사회주의 도덕	1	1	1	1
수학	5	5	6	6
국어	8	8	7	7
자연	2	2	2	2
위생	1	1	1	1
음악	2	2	2	2
체육	2	2	2	2
도화 · 공작	1	1	1	1

※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통일연구원, 2005, 19쪽.

〈사진 13〉 영웅위훈 따라배우기

〈표 8〉 중학교 교육과정

교 과 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	2	3	4	5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2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1	1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2	2	2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				1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현행 당정책				1주	1주	1주
국 어	5	5	4			
문 학				4	3	2
한 문	2	2	1	1	1	1
외국어	4	3	3	3	3	3
력 사	1	1	2	2	2	2
지 리	2	2	2	2	2	
수 학	7	7	6	6	6	6
물 리		2	3	4	4	4
화 학			2	3	3	4
생 물		2	2	2	3	3
체 육	2	2	2	1	1	1
음 악	1	1	1	1		
미 술	1	1				
제 도				1	1	
컴퓨터				2	2	2
실습(남 · 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통일연구원, 2005, 21쪽.

최근 북한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사상교육의 내용과 교육강령을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듯하다. 정치사상교육의 요지는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가 침투하는 것을 막고 주체사상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백두산 3대장군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것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소학교에서 사회주의도덕을 포함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우상화하는 정치사상교과목의 비율이 전체 교과 중에서 약 15%를, 중학교 교과에서는 약 13%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정치사상교육은 특정과목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자연, 음악과 같은 교과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모든 교과서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혁명전통교양, 반미 · 반일 제국주의사상과 계급교양, 사회주의도덕 등 사상교양의 원리가 담겨져 있었다.

〈사진 14〉 김정숙반신상에 꽃바구니를 증정하는 모습

한편 김정일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북한 교육과정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것은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실용적 교과의 도입과 교육내용과 방법상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과학기술교육과 컴퓨터교육 강조

첫 번째 교육과정상의 변화로는 정보화시대에 따른 과학기술교육의 강조와 컴퓨터교육의 실시이다. 대학에서는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연과학분야의 학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학은 컴퓨터전문가 양성체계를 마련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을 신설한 것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에 컴퓨터 관련 단과대학과 학과, 그리고 강좌를 신설하고 있다. 일반대학에서는 〈컴퓨터 기초실기〉, 〈프로그램작성법〉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컴퓨터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성하고 있다. 1998년 2월 김정일이 컴퓨터교육의 강화를 지시한 이후, 중학교 4학년부터 주당 2시간씩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각 교육성은 '프로그램교육지도국', '컴퓨터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전국 학교에 대한 컴퓨터 교육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컴퓨터교육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중학교에서의 컴퓨터교육은 저조한 실정이다. 그 원인은 1차적으로

컴퓨터기기의 절대적 부족과 컴퓨터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사의 부족에 기인한다. 교사들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컴퓨터 활용능력이 학생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성에서는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컴퓨터강습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사진 15〉 컴퓨터교육 장면

깊이보기 ❺ : 컴퓨터교육 현황

- 과학분야의 수재학교인 평양제1중학교는 100여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제1중학교는 10~20대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01년에 금성제1중학교(현재 금성학원)와 금성제2중학교(현재 금성제1중학교)에 '컴퓨터수재반'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을 컴퓨터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 일반중학교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1~2대 정도로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새터민들의 절반 가량이 학교에서 컴퓨터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종이에 모조키보드를 만들어 한글과 영어자판을 익힌 후에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정규교과 이외에 각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로 '컴퓨터소조'를 구성하여 집중적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실용적 외국어교육 강조

두 번째는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영어 · 중국어 등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교육이 실시되고 일부 대학에서는 자본주의교과목이 개설되는 등 실용적 교과가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제1외국어는 노어였다. 그러나 '80년대 말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영어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노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제1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는 학교가 많아졌다. 1995년에는 노어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조정함으로써 영

어가 제1외국어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전문학교와 대학교에서도 영어를 주당 3~4시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였고 주당 2시간의 선택과목으로는 노어보다 일본어와 중국어가 더 인기가 있다.

남한의 영어교육이 일상생활에서 영어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외국문화를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북한의 영어교육은 조선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영어교육은 영어권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외면하였고 북한의 정치교양과 함께 영어를 습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영어교육은 내용과 방법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매 학년 교과서의 처음 부분, 또는 마지막 단원에 김일성 ·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내용은 주로 학교생활을 소재로 일반회화와 연습문형에 초점을 맞추어 개편되었다.

외국어 전문가가 과거에는 외교업무와 대외무역부문에서만 요구되었으나 최근 국내외 관계의 다변화로 무역 · 과학기술 · 교육 · 문화 ·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의 양성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문법위주의 기존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사진 16〉 창전고등중학교 외국어학습 장면

깊이보기 ❻ : 외국어교육 실태

- 외국어교육은 일반중학교에서도 실시되고 있지만 소수정예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학원에서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외국어교육은 원어민 강사와 외국어교재 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영어교육 현실에 대한 증언들

"영어가 많이 힘들었어요. 북한에서 고등중학교에 다닐 때 노어반 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터민 증언)

"한국의 영어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요. 영어가 북한에서 배웠던 수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새터민 증언)

"명문대학에 속하는 평양외국어대학을 방문하고 너무 낙후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시설, 교육기자재, 특히 교육용 시청각기자재는 1980년 초에 기부한 물품수준으로 너무 낙후했습니다." (주중영국문화원 학습 · 연수실장 니콜 라루비에르)

▶ 선택과목교육 실시

북한의 교육과정안에는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1년 4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지역별 · 지대별 특성에 따라 '선택과목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선택과목은 학생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특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지역별 · 지대별 특성에 따라 공업 · 농업 · 수산업 · 임업 등 과목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실리주의의 확산은 실용적 교과의 도입과 함께 교육방법상의 변화도 가져왔다. 교육현장에서 실력제일주의·학습제일주의 구호가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교육의 메카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최근 학점제와 계발식 강의방법이 도입되었다. 2003년부터 학과실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5단계 평가와는 달리 학생들의 실력을 순위로 매기는 '학점제'를 도입했다. 이와같이 북한의 교육과정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새로운 시대의 변화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 17〉 전국청소년바둑경기대회

5.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교육 변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인민생활 전분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가격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물가현실화조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격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경제개혁조치에 따라 교육부문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사회주의계획경제가 붕괴된 후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북한은 시장경제의 학습과 그 준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우선 북한은 해외연수생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 · 유럽 · 아시아 등 여러나라로 해외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교육은 경제학 · 국제법 · 국제기구 · 유럽문제 등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 통상외교 · 외국인 투자 · 개발문제 등 시장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에는 북한당국의 협조 하에 유럽 등 외국기관과 기업들이 북한 간부와 주민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기업운영 등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스위스정부 산하기구인 개발기업청의 지원으로 북한에 최초로 사립경영학교인 '평양비즈니스스쿨'이 설립되었고 2005년 현재 30여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깊이보기 ❼ : 북한 관리들의 시장경제분야 연수사례

- 1998.6~12.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북한의 국 · 과장급 관리 110명이 유럽 · 호주 · 홍콩에서 자본주의경제 학습
- 1998년과 1999년에 북한의 통상담당 관리 · 대학교수 · 협동농장 간부 등 각 1개월씩 아시아재단과 뉴욕주립대 후원으로 베이징대학에서 통상법 · 증권거래법 · 외자도입법 등 자본주의법 학습
- 2000.6. UNDP의 후원으로 북경에서 김일성대학 부총장, 최고인민회의 등 고위관료 15명이 시장경제관련 학습
- 2000년 1월부터 1년간 UNDP의 재정지원 아래 북한 관리 20명이 호주에서 농업기술 연수
- 2001.5. 북한외교관 11명이 스위스 제네바 소재 다자협상실습연구소(CASIN)에서 스위스 외무부의 지원으로 6주간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비롯한 시장경제 학습
- 2002.3. 북한의 무역상 · 재정상 · 금속기계공업성 · 채취공업성 등의 고위관료 12명으로 구성된 경제시찰단이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에서 자본주의경제 연수
- 2003.8.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찌민시에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상과대학 구주일본연구소가 실시하는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에 약 2주간 참여
- 2004.9. 북한 재정성 · 중앙은행 · 무역은행 소속 관리들은 이탈리아 개발협력처의 협조로 금융분야 연수

이와 함께 북한의 대학들도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변화에 착수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1997년에 〈자본주의경제강좌〉를 개설한데 이어 2000년에는 사상 최초로 법률대학을 신설하여 국제법전문가 양성을 준비하고 있고, 경제학부에는 무역경제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자본주의 기업관리연구 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1998년에는 나진정보센터 등 무역전문가 양성기관을 설립했고 2000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제도연구원'을 창립하였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에 경제전문가 양성에 대한 관심은 대학내 학과와 학과목의 개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은 대표적인 경제전문가 양성기관이다. 이 대학은 계획경제학부, 자재공급 및 노동행정학부, 재정경제학부, 상업경영학부, 무역경제학부로 조직되어 있었다.

'7·1 조치' 시행을 전후로 기존의 무역경제학과 외에 국제금융학과를 신설하였다. 더불어 국제경제와 관련된 학과목은 물론 계획정보처리, 자재공급정보처리, 노동행정정보처리, 재정정보처리 등 정보산업과 관련된 학과목을 신설하였다.

〈사진 18〉 김일성종합대학교 정문

깊이보기 ⑧ : 북한 교육기관들의 시장경제학습을 위한 시도

- 무역일꾼 양성을 위해 각 대학에 대외경제무역학과 설치
- 1997년 김일성종합대학은 '자본주의경제' 강좌 개설
- 1998년 나진정보센터에 무역전문가 양성기관 설립
- 2000년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제도연구원 창립
- 2000년 김일성종합대학은 최초로 법률대학을 신설하여 국제법 전문가 양성을 준비하고, 경제학부에는 무역경제학과를 신설하여 자본주의 기업관리연구에 주력
-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은 최근 무역경제학과 외에 국제금융학과 및 다양한 강좌 신설
- 최근 스위스정부 산하기구인 개발기업청의 지원으로 북한에 최초로 사립경영학교인 '평양비즈니스스쿨' 설립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교육부문에도 그 여파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7·1 조치' 이전에 발표된 '1·10 경제관리 개선지침'에 의하면 "무료 의무교육제와 무상의료제, 사회보장제도와 명예군인 우대제도 등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제도를 계속적으로 발전 강화시키면서 일부의 불합리는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무료교육제도를 유지하겠지만 일부 불합리한 점은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장에서 '독립채산제'가 강조되듯이 학교운영에 있어 국가예산 지원보다는 자체의 예산 확보능력이 보다 강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자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인 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기본 수준에서만 유지하고, 다른 분야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교육부문에 독립채산제와 유사한 논리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학부모가 학교시설의 정비, 교육기자재의 구비, 겨울철 땔감용나무에서부터 군대위문품과 각종 폐품수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경제개혁조치 이후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생활방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노동현장이나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 경쟁, 화폐, 혹은 개별화된 소비양태들이 확대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개인주의 · 배금주의 · 실용주의적 가치와 사고가 배태되어 가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에서도 비록 그 속도는 완만하지만 체제나 이념에 앞서 먹고 살아가는 개인적 삶의 문제를 중요시 하고, 자신의 진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학 전공이나 직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다.

Ⅳ. 나오는 말

Ⅳ 나오는 말

북한의 교육은 김정일정권의 출범을 전후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성대국건설을 표방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국가의 정책기조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교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수령결사옹위정신' 이나 '수령의 충성동이 · 효자동이' 라는 구호가 강조됨과 동시에, 21세기의 "문맹자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정보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양극단의 공존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령 우상화교육에 기초한 정치이데올로기 교육과 현대의 컴퓨

터 · 정보화교육 및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수재교육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김정일시대의 북한교육은 체제유지와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적 대응과 변화의 모색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교육은 체제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정치사상성을 강조하는데, 북한은 유일사상체제를 기초로 주체사상과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기반이 되는 평등주의적 교육제도는 11년 무료의무교육제와 성인교육체제를 통해 그 근간을 유지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이나 평등지향적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김정일정권의 교육정책은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김정일시대의 교육은 경제발전 및 국제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재양성과 교육제도의 기반을 정비하였다. 과거에 북한당국이 학교의 사회적 선발과 배치에 있어 개인의 능력보다는 '출신성분' 과 '당성' 을 중요시 했다면, 최근에는 학생선발의 기준은 '실력' 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김정일서한(1996)에서 대학생선발과 배치에 있어 실력본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제시한 것이나, 「교육법」(1999)에서 고

등교육과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 하겠다.

이렇게 실력을 중시하는 시대분위기에 편승하여 북한 내에서는 수재학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겨냥한 수재학교는 능력주의와 전문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교육의 평등주의적 요소를 보강하는 엘리트교육의 확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과학분야의 영재학교가 200여개에 달하고, 대학에 수재반이 운영되고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정부가 우선적인 지원을 할 정도로 실력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현실은 아직까지도 실력보다는 성분이나 정실 · 안면 관계가 대학입학이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보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육계에 학력이나 전문성의 개념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변화로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실용적 과목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즉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든가 북한의 제1 주적인 미국의 언어인 영어가 실용성의 논리에 따라 제1외국어가 된 것, '7 · 1 경제관리 개선조치' 를 전후하여 자본주의경제 학습을 목적으로 해외로 연수생이 파견되고 있거나, 일부 대학에서 자본

주의 경제와 법률 관련과목이 신설되고 학과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새로운 교과의 도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에 있어 실용성 · 효율성 · 경제적 기능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1990년대 북한은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국가의 배급체계가 와해되었고 무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북한 주민들과 청소년들은 수많은 아사자를 창출한 고난의 행군시기를 경험하면서 국가의 도움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스스로 학용품이나 잡부금을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 청소년들은 체제와 이념에 앞서 개인의 삶을 중시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주의 · 배금주의 · 실용주의적 가치와 사고를 배태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사회를 개혁 · 개방으로 전환시킬 정도로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교원신문』 (2001.1.1 & 2.1)
-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1984.7.22)
- 김정일서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 데 대하여" 『중앙방송』(1996.11.28)
- 남성욱,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건설』, 한울아카데미, 2002.
- 로동신문 (1995.12.25; 2000.1.1; 7.4; 2001.1.1; 5.23)
- 송경준, 『북한의 IT교육 현황과 특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교육과학사, 2003.
-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 동향", 『통일교육연구』 제2호, 통일교육학회, 2002.
- 신효숙, "북한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 『북한연구학회보』 5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01.
-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통일연구원, 2005.
- 연합뉴스(2000.1 – 2006. 1)
- 조정아, "김정일시대의 북한 교육정책", 『아시아교육연구』 5권 2호, 서울대 교육연구소, 2004.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